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하나님의 날, 주 말씀>

1.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한 이상세계의 행사를 하고 있다.
2. 우리가 돌리는 영광은 신약시대 때의 영광이 아니라 성약시대의 영광이다. 새 시대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확실히 아는 자들이 돌리는 영광이다.
3. 섭리사에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확실히 알아야 밭에 감추인 보화도 찾고 자기 것으로 만든다.
4.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시대의 문헌 보화다. 곧 밭에 감추인 보화다.
5. 보화를 자기 땅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남의 땅에서 발견했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살 때는 비밀을 지키고 또 한 가지는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된다. 혼자만 보고 기뻐하면 안 된다.
6.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했어도 땅을 산다는 말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듯이 자기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다. 마치 내 하나님, 내 성령님, 내 주님 할 때까지 해야 된다.
7.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했다. 이와 같이 자기 것으로 삼을 때 소유권의 기쁨을 느끼고 즐겁고 이상적이다.

8. 발견했을 때는 발견한 기쁨밖에 없다.
9. 자기 소유권으로 삼았을 때는 개발할 수 있다.
10. 개발이 그렇게 크다. 만일 남의 땅이라면 개발하지 못 한다.
11. 개발하는 기쁨은 마치 화장해서 예쁘게 만드는 것과 같다. 또한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만드는 것과 같고, 수영을 못했지만 배워서 가는 것과 같다.
12. 이상세계도 직접 겪는 사람은 알지만, 겪지 못한 자는 모른다.
13.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때 이상세계로 전환하지 못하면 못 한다.
14. 굼벵이가 나비 되는 기간은 아무 때나 안 된다. 기간이 16일 정도인데 이때 못하면 애벌레로 끝나고 만다. 이와 같이 섭리사신부들도 이 때 전환이 안 되면 1년 동안 못 한다.
15. 선생은 머리이기 때문에 먼저 개구멍을 뚫고 나왔다. 그 다음은 몸이 뚫고 가는 일이다.
16. 금년도는 받는 세계, 이상세계를 얻어야 된다. 그러려면 먼저 전환하고 거듭나고 새롭게 돼야 한다.
17.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이 되고 전환이 되고 변화가 돼야 된

다. 그래야 이상세계로 옮김을 받는다.

18. 말씀을 듣고 커야 된다.

19. 받아들여야 커지고, 믿어야 커지고, 행해야 커진다.

20.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 안 하면 주저앉는다.

21. 새로운 2021년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주관권의 위치의 차원에서 못 사는 사람은 2020년의 삶을 또 사는 격이다. 그러면 투덜대고 기분이 나쁘고 착잡하다.

22.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부활되면 상관없다. 섭리 안에서 주관권 차원을 높이는 부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심하고 적적하다.

23.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상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

2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말씀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다.

25. 능력이 없으면 못 누린다.

26. 건강하지 못하면 이상세계를 못 누린다.

27. 코로나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코로나 법도

지키면서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28.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기간에 코로나에 대한 말씀을 하는 이유는 금년도에 걸릴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29. 마음도 생각도 행실도 깨끗이 해야 이상세계가 일어난다.

30. 죄를 회개함으로 더럽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고, 악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되, 미친 사람처럼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이상세계다.

31.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일체 되어 사는 삶이 휴거 역사의 차원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굶뎡이로 사는 애벌레가 부활 돼서 나비가 되는 것이다.

32. 더 만들수록 이상세계다.

33. 한 단계 더 한 것이 그렇게 크다.

34. 한 단계 더 간 사람은 더 간 세계에서 논다. 이는 본인이 하는 행실에 따라서 가는 것이다.

35.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있다. 바로 상대적 사랑을 창조하기 위해서다. 하늘나라의 수많은 천군, 천인들과 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만족이 없으셨다.

36. 자녀들이 아무리 엄마를 사랑해도 원 사랑의 마음은 아버지한테 있다. 자녀가 알롱거리고 해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머니의 마음을 순간 채워준다. 이와같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대적 세계인 지구를 창조하셨다.
37. 하와 자체가 선악과다. 머리부터 몸까지 선악과이고, 축소시키면 금단의 열매가 선악과다.
38. 아담 자체가 생명나무다. 축소시키면 에덴동산의 중앙이 생명나무다.
39. 여자의 몸 전체가 에덴동산이다. 에덴동산은 아름답다. 이는 다 갖췄기 때문이다.
40. 남자도 남자로서 다 멋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다.
41. 하나님은 이들을 성장시켜서 하나님만 절대 사랑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과일을 따먹어서 이성의 타락을 했다.
42.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죽은 것이다.
43. 하나님의 법으로 따지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44.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자를 뱀이라고 한다. 이는 루시퍼다.
45. 이 모든 인봉이 6천 년 만에, 마지막 때가 되어 다 얘기해주었다.
46. 루시퍼는 아담과 하와를 꾀어 타락시켰다. 기어이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막는다. 고로 지구상에서 루시퍼를 이겨야 한다.
47.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온 것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다. 고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사탄을 이겼다.
48.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해서 믿게 만들고 따라오게 만들면 이긴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고 따라오지 않은 사람은 진 것이다.
49. 시대마다 세례요한이 있듯이, 메시아도 있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절대 주관을 세우면서 왔다.
50. 하나님의 뜻을 펴는데 아담과 하와가 절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면 때가 되어 결혼을 시키고 자녀들을 낳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애인을 사랑하듯 사랑했을 것이다.
51. 하나님은 할 것은 다 하신다. 결국 절대 사랑의 역사를 쓰셨다.
52.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휴거 역사, 창조목적의 역사다.

53. 이 세상에서 어떤 기업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기업은 할 수 없다. 영영한 역사가 될 수 없다.

54. 하나님을 뺏기면 다 뺏긴다. 절대적으로 무엇을 취도 뺏기면 안 된다.

55. 결혼하면 남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여자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56. 물질 축복을 주면 물질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57. 잘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은 정신, 중심을 보신다.

58.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조 목적 역사는 계속 해왔다.” 하셨습니다. 마치 여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 크고 성장하고 결혼했을 때 백년해로 하듯이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이 시대는 이 시대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